

■ 법률 칼럼

학생 신분 변경 시 유의사항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시에 주의할 사항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에 대한 준비

잘 알려진 대로 이민국은 신청인에게 1년 정도의 학비와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은행 잔고에 관한 서류를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구좌 증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통장으로 대신 공부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진술서 등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2. 90일 규정

미국 입국한 이후에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은 90일 규정입니다. 미국 방문 등 특정 신분으로 입국한 후에 신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하면 입국 시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분들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최근 더욱 강화된 입국에 대한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분 변경을 하려는 어떤 조치만 했어도 이민관 재량에 따라 케이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0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혹시라도 1-20를 발급받는든지 하는 학교로 진학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 케이스가 거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공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

이민관에게 왜 그 학교에서 그 과정을 듣고자 하는지,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편지에 잘 설명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니다. 최근 이민국 경향이 신분 유지를 위해서 공부의 의지 없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케이스를 강력하게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학교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까지 신분 유지 규정(브리지)

지난 몇 년 간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분들이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30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 이전의 신분이 학교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의 체류 신분이 2024년 2월1일에 끝이 난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학교가 적어도 2월 31일이 이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이하게 내 현재 신분이 끝나기 전에만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 분들이 크게 낭패를 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문 신분으로 6개월을 기존 신분으로 연장하거나 변경하여 이 30일 갭을 유지해 주려는 브리지가 지난 몇 년 간 학생 신분 변경에 있어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시 기존 신분을 6개월 간 방문비자로 연장 또는 변경해 주는 것을 같이 신청하는데 이것을 브리지라고 부릅니다. 체류 신분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 신분 변경을 하는 분들은 꼭 이 브리지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속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많이 남은 경우도 브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수의(壽衣)

“애시*야! 나는 나중에 옷장 안에 있는 분홍색 한복을 입을 거다.”

넘어져 팔 기브스를 하고 거동이 힘들어 누워계신 엄마가 방문한 고모와 나는 대화 중의 일부이다. 엄마가 귀향하신지 벌써 10년이 가까와 온다. 그 당시 80의 중반이었던 엄마는 키우다시피 한 손아래 시누이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셨다.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면 나이는 의미가 없어진다.

며칠 전, 4년 반 전에 온 가족과 함께 100세 생일잔치를 벌였던 어느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고인의 가족이 어머니께서 입으실 수의(壽衣)라고 가지고 왔다. 박스에는 ‘마지막에 입을 수의’라고 적혀 있었다. 고인의 필체 같았다. 상품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고 오래 전 직접 만든 옷임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은 “30년도 더 되었을 겁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였을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전해주었다. 모시로 만든 흰 수의는 박스 속에서도 퇴색되며 나이에 더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만든 수의는 사이즈가 하나인 같다. 큰 사람이 입어도 여유가 남도록 크게 만든다. 부모님께서 입던 옷이라며 맞지 않는 작은 옷을 생각없이 가져오는 것과는 자연적으로 비교가 된다. 연을 해드리고 수의를 입혀 드리며 생각에 빠져든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 인생이 엄마의 방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의지했던 어른이 사랑채에서 떠나심도 보았다. 동생을 맞으며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심부름하며 배웠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별하면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보면서 성장하였다. 생과 사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인생을 배웠던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망자에게도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대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며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마지막

으로 입을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가져 오시고 지금까지 준비해 두고 계신 같다. 30년 이상이나.

한국의 수의는 대부분 모시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빨리 자연으로 환원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시나 삼으로 만든 수의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를 통해 강제로 시행한 사회 교화자료 ‘의례준칙’에 의해 삼베를 수의로 지정한 뒤로 대부분의 장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전 우리의 조상들은 망자에게 비단이나 명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 본래 삼베는 돌아가신 분께 입혀드리는 수의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입을 상복 소재로 쓰였다. 거친 삼베는 유가족들이 죄인이라는 뜻으로 입었던 수의(囚衣)라는 뜻을 담고 있던 것이다.

수의는 가장 오래 입고 있을 옷이다. 갈아 입지 않는다. 언제 입을지 모르지만 꼭 입어야 할 옷이다. 우리 엄마는 분홍 한복을 오래오래 입고 싶었나 보다. 90을 바라보지만 마음은 18세였을까? 먼저 가신 아버지 만나며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였을까? 분홍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오랫동안 입고 있을 옷, 혹은 내가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선정해 두는 것은 여러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본인에게도, 이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나의 준비이기도 하다.

*애시: 손아래 시누이를 부르는 호칭

이효섭 장의사, 사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